

IT World How To

# “협업 툴의 새로운 강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완전 정복

마이크로소프트는 2017년 팀즈(Teams)를 출시하며 날로 치열해지는 협업 툴 시장에 진출했다. 특히, 기업 환경의 필수 요소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와의 긴밀한 통합은 물론, 일부 오피스 365 플랜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등 슬랙(Slack) 같은 단독 협업 툴과는 확실한 차별점을 강화하며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협업 툴의 새로운 강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완전 정복>에서는 타 협업 툴과의 비교를 통해 팀즈의 강점을 살펴보고, 팀즈를 활용하는 방법과 유용한 앱까지 살펴본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본 PDF 문서는 IDG Korea의 자산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IDG Korea의 허락 없이 PDF 문서를 온라인 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 전재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 슬랙과의 비교로 알아본 강점

Matthew Finnegan | Computerworld

**□** 마이크로소프트는 고속 성장 중인 팀 메신저 시장을 대상으로 팀즈(Teams)를 출시했다. 슬랙이 주도하고 있으며, 구글, 페이스북, 시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다양한 팀 채팅 도구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직원들을 연결해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메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이를 대체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홍보 담당자는 팀즈를 “열린 사무 공간의 디지털 변역기”라고 정의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슬랙을 따라잡고자 노력 중이다. 그런 가운데 팀즈를 오피스 365의 커뮤니케이션 및 협업을 위한 중심 허브로 재빠르게 포지셔닝했다. 팀즈로 비즈니스용 스카이프를 대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그 증거다.

어쩌면 경쟁 제품을 이미 따라잡았는지 모른다. 스파이스웍스(Spiceworks)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슬랙보다 팀즈가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또, 이 보고서는 향후 2년간 팀즈의 초고속 성장을 전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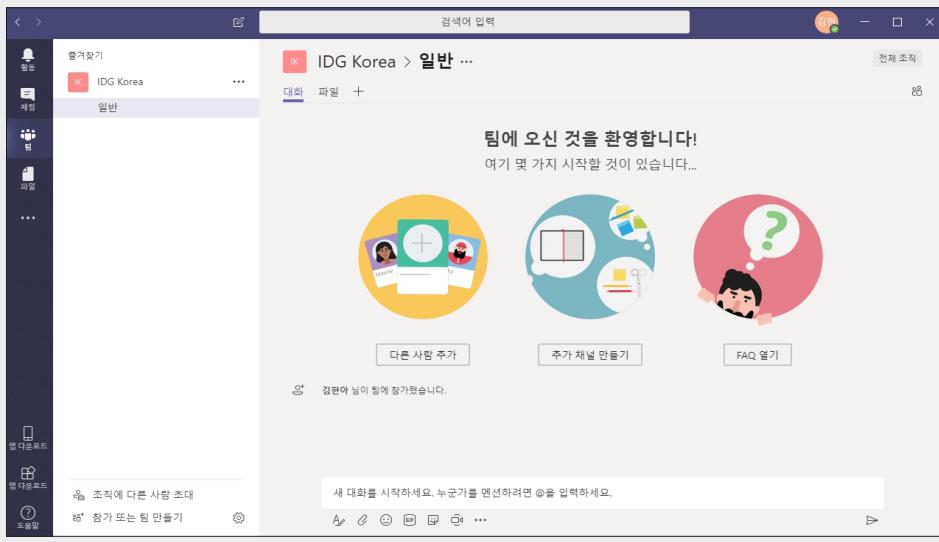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피스 제품군으로 오랜 기간 기업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했으며, 이것이 협업 제품 시장에서의 성장에 튼튼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협업 툴 시장은 호황기에 접어든 상태다.

리서치 기업 프리폼 다니아믹스(Freeform Dynamics)의 저명한 연구 애널리스트 겸 디렉터인 리차드 에드워드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제품 개발과 마케팅 측면에서 팀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전술적인 실험 프로젝트였지만, 지금은 전략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활용 방법

기본적으로 팀즈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든, 원격지에서 근무하고 있든 사용자들이 텍스트 기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메신저다.

글타래 형태의 대화를 지원하는 단체 채팅방이 있고, 개인 간의 비밀 채팅도 가능하며, 필요 한 경우 버튼을 눌러서 화상 통화로 바꿀 수도 있다. 가트너의 리서치 디렉터 래리 카넬은 “대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시작 화면

분의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순한 대화 방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도구 이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포트폴리오와 통합된 덕분에 강력한 콘텐츠 협업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앱을 나가지 않고도 원드라이브 문서를 편집할 수 있다.

카렐은 "슬랙보다 나은 강점 중 하나다. 단순히 그룹 채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파일 공유와 콘텐츠 협업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 1월 앱 딕렉토리를 출시했다. 그리고 트렐로(Trello), 스마트시트(Smartsheet), 라이크(Wrike) 같은 프로젝트 관리 도구 등 타사의 여러 봇과 애플리케이션을 팀즈에 통합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 외에도 몇몇 협업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하고 있다. 야머(Yammer), 아웃룩(Outlook), 셰어포인트(SharePoint)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일부 중복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최상의 도구가 무엇인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인 에이브포인트(AvePoint)의 솔루션 엔지니어 헌터 윌리스는 야머와 팀즈는 용도가 다르며, 같은 회사에서 별개의 협업 플랫폼으로 '공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HR 직무 개발이나 셔티브 같은 전사적인 발표 사항과 참여에는 야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반면, 팀즈는 더 작고 응집된 그룹에 가장 효과적이다. 그는 "팀즈의 경우, 수많은 게시물 때문에 혼란과 혼동이 초래될 가능성이 훨씬 더 낮다. 이는 팀즈를 이용했을 때 직원들의 응답이 더 빠르다는 의미도 된다"고 설명했다.

브라우저와 데스크톱 앱, 모바일 앱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호스트형 소프트웨어이며,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허브 2(Surface Hub 2) 디지털 화이트보드와도 통합될 예정이다.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가격 체계

팀즈는 일부 오피스 365 계정 소유주에게 제공된다. 비즈니스 에센셜(Business Essential),

비즈니스 프리미엄(Business Premium), 엔터프라이즈 E1, E3 또는 E5가 여기에 해당된다.

가장 저렴한 라이선스는 비즈니스 에센셜로 사용자당 월 5달러(연간 구독)이고, 가장 비싼 E5는 사용자당 월 35달러이다. 물론 이러한 구독 플랜에는 다양한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365 아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및 준수 관련 기능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 학생들은 A1, A3 및 A5 라이선스 아래 팀즈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의 경우 지금 당장은 팀즈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무료 버전도 출시했다.

슬랙의 경우, 기본 기능은 무료이고 고급 기능은 유료인 프리미엄(Freemium) 전략을 택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 사용자의 요금제는 3종으로 나눠져 있으며, 대규모 배포 시장용인 엔터프라이즈 그리드(Enterprise Grid)라는 서비스도 있다.

또 다른 경쟁 제품인 구글 행아웃 채팅(Google Hangout Chat)은 G 스위트(G Suite) 구독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메신저 앱이다. H 스위트는 사용자당 월 5~25달러이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액세스할 수 있다. 가격은 오는 4월부터 사용자당 월 6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 팀즈 vs. 슬랙(및 기타)

팀즈의 주 경쟁 제품은 당연히 슬랙이다. 애드워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슬랙에 대응하기 위해 팀즈를 개발했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에 슬랙 인수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빌 게이츠와 사티야 나델라 CEO가 이 계획에 반대를 하고, 독자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로 결정했다.

2018년 9월 기준, 약 32만 9,000개의 기업과 기관이 팀즈를 사용하고 있다. 6개월 전만 하더라도 20만에 불과했었다(그렇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월 사용자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월 활성 사용자가 1만 명 이상인 기업이 BP(British Petroleum), 허니웰(Honeywell), 히타치(Hitachi) 등 54개 회사에 달한다. 최초로 10만 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팀즈를 배포한 회사도 있다. 대형 컨설팅 회사인 앤센추어(Accenture)다.

대조적으로 슬랙은 전체 사용자 기반 800만 중 유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 팀은 각각 300만 명과 7만 개 팀이다. 무료 버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쟁 협업 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유사한 작업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처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도구마다 중요한 강점들을 갖고 있다. 팀즈의 경우, 특정 오피스 365 구독 플랜에서는 추가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있던 1억 5,500만 명의 사용자에게 매력적인 부분이다. 별개 도구에 돈을 투자하는 대신 팀즈를 사용할 것이다.

애드워드는 “조직은 스스로 ‘대안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보다 더 나을까? 별개 구독 요금을 지불하고 사용할 가치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룹 협업 도구의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업 시장의 뿌리 깊은 입지를 활용해 팀즈가 대규모로 배포되도록 박차를 가할 수 있다. 윌리스는 “팀즈는 채팅 기반 협

업 소프트웨어 시장의 ‘후발 주자’이지만 유리한 점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환경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맞춤화해 제공한 경험이 아주 많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일부 조직과 사용자에게는 슬랙의 장점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슬랙은 개발자를 중심으로 협업 도구의 얼리 어댑터들로부터 추진력을 얻은 도구다. 이런 ‘입소문’ 도입 효과를 따라잡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전 과제다.

여기에서 더해, 슬랙은 개방성, 다양한 애플리케이션과 통합할 수 있는 기능 등이 중요한 장점이다. 카넬은 “외부 시스템과 더 빨리 통합할 수 있는 도구는 슬랙이다. 예를 들어, 슬랙은 세일즈포스와 통합되어 있지만, 팀즈는 그렇지 않다. 심지어 내부 CRM 시스템 통합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슬랙이 출시된 유일한 팀 채팅 도구는 아니다. 다양한 수준에서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앱들이 많다. 예를 들어, 구글 행아웃 채팅과 행아웃 미팅 또한 ‘제품군’ 형태로 접근하는 도구다. 지메일과 문서, 스프레드시트 같은 G 스위트(G-Suite) 생산성 도구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시스코의 웹엑스 팀즈(Webex Teams), 기존의 스파크(Spark)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이름만 닮은 것이 아니다. 유사하게 통합 커뮤니케이션과 그룹 채팅에 초점을 맞춘 도구다. 이밖에도 수많은 기존 통합 커뮤니케이션 업체와 스타트업이 이 시장에 진출해 경쟁하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배포와 관련된 과제

업체가 팀 협업 도구 제공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즈니스 IT 사용자들에게 약간은 생소한 기술이다. 다른 팀 채팅 도구와 마찬가지로, 팀즈를 배포할 때도 도전과제에 직면한다.

에드워드는 “약간의 ‘학습 곡선’이 존재한다. 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새로운 도구를 시험해보고 싶어하는 직원들도 일부 있겠지만, 많은 직원들은 자신에게 친숙한 앱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 방식을 수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에드워드는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이라는 것을 인식시키지 않는 한, 10년, 15년, 20년을 아웃룩을 중심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다른 무엇을 대신 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채팅 앱은 사용이 단순할 수도 있지만, 팀즈 같은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도록 만들려면 교육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윌리스는 “거버넌스와 보안 전략, 프로세스를 개발한 후, 적절한 트레이닝에 무게를 둬야 한다. 많은 기업과 기관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를 간과하면, 직원들이 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정반대로 누군가 적당한 수준으로 조직 프로세스를 정립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무분별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 비즈니스용 스카이프를 대체하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이미

팀즈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진행 상황’ 중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팀즈로 비즈니스용 스카이프를 대체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비즈니스용 스카이프를 단계적으로 없앤 후 ‘팀웍’을

위한 단일 허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을 둔 결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GM 로리 라이트는 “우리는 신속하게 채팅 기반 작업 영역이었던 팀즈를 팀워크를 위한 허브로 포지셔닝했다. 우리는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확인했다. 제대로 협업을 하려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야 하고, 통합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야 하며, 전화를 걸 수 있어야 하고, 음성 및 비디오 회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협업 환경과 경험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고 강조했다.

가트너의 카넬은 비즈니스용 스카이프에서 팀즈로의 전환이 비교적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스턴트 메시징과 온라인 회의에만 비즈니스용 스카이프를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 기업에게 팀즈는 꽤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즈니스용 스카이프에 ‘올인’하고, 책상 위 전화를 이 앱의 음성 관련 기능으로 대체한 기업들은 더 많은 장애물에 봉착할 수도 있다. 카넬은 “이 경우 조금은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인스턴트 메시징, 온라인 회의, 오디오 회의, 화상 회의, 화면 공유 등이 대부분의 용도라면 팀즈가 좋은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이브포인트(Avepoint)의 윌리스는 “팀즈는 이미 비즈니스용 스카이프보다 더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윌리스는 IT 팀이 팀즈를 적절히 테스트한 후, 마이그레이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전략과 트레이닝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파일럿 그룹을 편성하고, 열정을 가진 얼리 어댑터들과 고급 사용자를 찾아 변화에 대해 홍보하고, 셀프 서비스 트레이닝 리소스를 준비하는 등’ 변화 관리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는 “이것이 이런 프로세스의 좋은 출발점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기업과 기관이 더 빨리 준비하고 더 많이 계획을 수립할 수록 변화가 원활해질 것이다.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로드맵

마이크로소프트는 2018년 새로운 팀즈 기능을 다수 출시했으며, 최근 몇 주 동안 다양하게 기능과 성능을 향상했다. 다음은 2018년에 발표된 업데이트 가운데 일부다.

- 클라우드 기반의 오디오 녹음 및 기록
- 팀즈가 구현된 장치(회의실 스피커 폰 등)에서 코타나 이용
- 팀즈 채팅의 메시지 줄 번역
- 팀즈 화상 통화해서 배경 흐리기
- 통화 지정 및 묶기, 직접 라우팅 및 회의 착신 같은 기업용 통화 기능

2019년에 들어서도 첫 몇 주 만에 2가지의 업데이트를 발표했다. 첫 번째는 새로운 팀 일정 기능이나 소매 및 의료산업 등의 일선 직원들을 위한 모바일 기능에 대한 업데이트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이크로소프트는 교육용 팀즈를 향상시켰다. 학생 정보 시스템 통합 기능, 교사들의 모바일 장치를 이용한 업무에 도움을 주는 기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ITWORLD](#)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사용법 A to Z

Jonathan Hassell | Computerworld

**O**메일이 보편화되어 있다. 오래 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집단이 협업하고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해가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 슬랙을 중심으로 출시된 몇몇 신제품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요’라는 데 배팅하고 있다.

슬랙과 유사한 팀 메신저 제품들은 조직에서 보편화된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인 글타래가 이어진 이메일 대화를 없애고, 이를 대화 주제나 맥락을 토대로 인스턴트 메시지 형으로 체계화된 채널로 바꾸고자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강력한 회사가 슬랙의 대안으로 제시한 제품이다. 오피스 365 비즈니스 및 엔터프라이즈 구독 플랜에 포함되어 있는 팀즈는 본질적으로 셰어포인트와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와 스프레드시트를 중심으로, 문서 작업에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진 그룹 채팅 소프트웨어다.

이메일 대신 팀즈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모든 사람이 주제에 집중해 대화한다.** 특정 주제에 초점이 맞춰진 채널에서 대화가 발생한다. 이메일 메시지와 글타래는 대화가 전혀 다른 주제로 이탈되기 쉽다. 반면 채널의 대화는 주제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며,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마찰’이 줄어든다.
- **이메일이 줄어든다.** 팀즈를 사용하는 팀원들이 늘어나 업무 관련 대화가 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 이메일을 매개체로 했을 짧은 대화가 모든 사람이 보고 응답할 수 있는 채널에서 발생하기 시작한다.
- **자신의 앞에 모든 리소스가 있다.** 실제는 오피스 365의 다른 도구에 저장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문서와 대화를 한 장소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문서와 공유 파일이 실제 위치한 장소는 셰어포인트이지만 팀즈의 관련 대화에 표시된다는 의미다.
- **팀즈는 실시간으로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동료들과 이메일을 주고받는 것보다 더 쉽게, 그 즉시 협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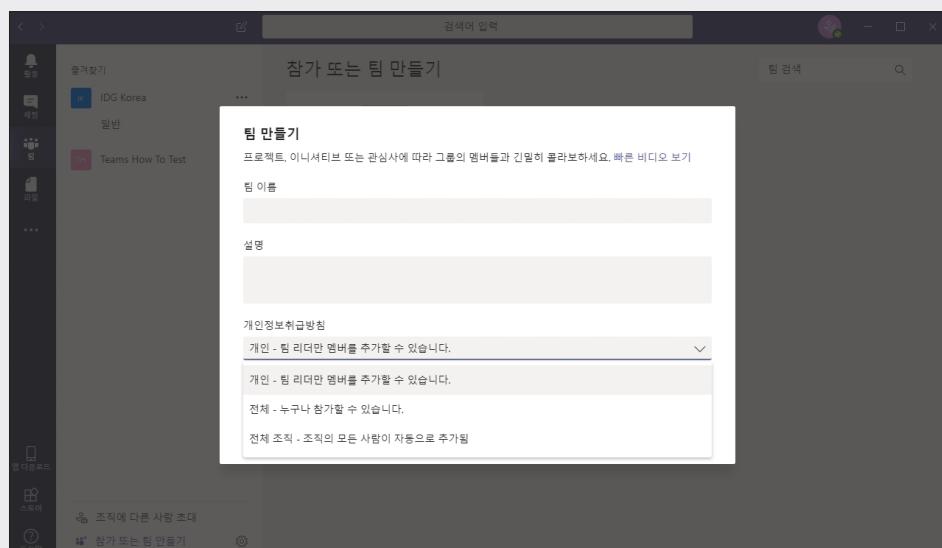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용 웹 인터페이스, iOS 및 안드로이드용 앱, 윈도우 10 모바일용 앱을 제공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팀즈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최고의 경험과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다. 윈도우(버전 7 이후)와 맥 OS(버전 10.10 이후)를 모두 지원한다. 회의와 채팅, 노트를 한 장소에 유지할 수 있는 많은 기능을 갖춘 애플리케이션이다. 여기서는

독자들이 데스크톱 앱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름이 시사하듯, 팀즈는 팀 개념을 토대로 체계화됐다. 팀이란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협력하는 작은 그룹, 전체 부서, 더 나아가 전체 회사가 될 수도 있다. 팀즈를 실행하면 팀 보기로 이동한다. 팀즈를 처음 실행하면 하나 이상의 팀에 등록되어야 한다.

## 팀 생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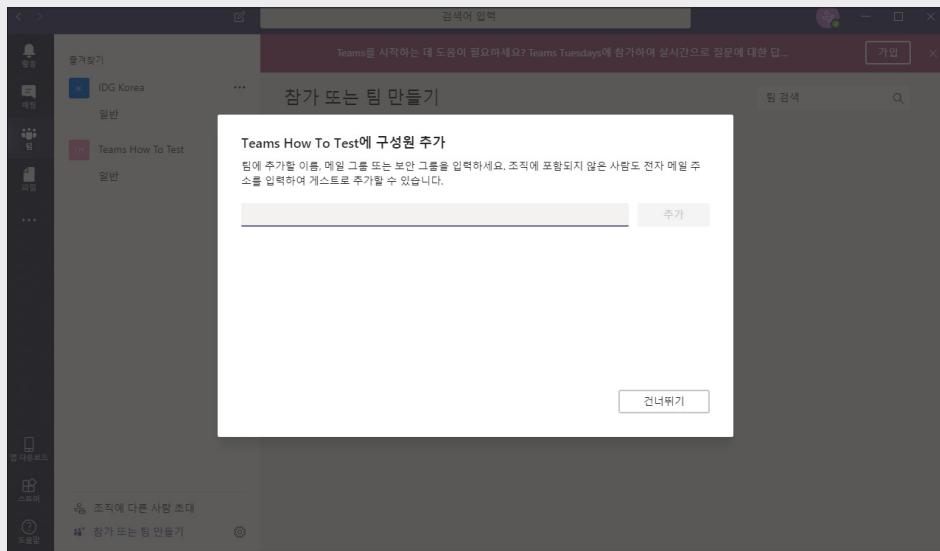
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팀을 만들어야 한다. 팀을 만들려면 왼쪽 탐색 메뉴에서 ‘팀’ 아이콘을 클릭한 후, ‘참가 또는 팀 만들기’를 클릭한다. ‘팀 만들기’를 클릭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팀에 이름을 붙이고 설명을 넣는다. 그런 다음 팀이 개인(자신과 팀의 소유자만 포함시킬 참여자를 결정할 수 있음) 팀인지 전체(조직 내 오피스 365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가능) 팀인지 결정한다.



그 다음 팀에 추가할 이름, 메일 그룹, 또는 보안 그룹을 선택하라는 대화창이 나타난다. 팀의 메모를 받아야 할 그룹이나 특정 직원, 더 나아가 대화의 내용에 관련된 구성원이 포함된 이메일 목록을 떠올린다.

조직 내에 오피스 365가 구성되어 있는 방식에 따라 조직 외부의 게스트를 초대할 수도 있다. 팀원 선택 화면에서 해당 게스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작업에 ‘게스트’라는 상태가 표시될 것이다. 만일 관리자가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팀즈에선 권한이 없다는 안내가 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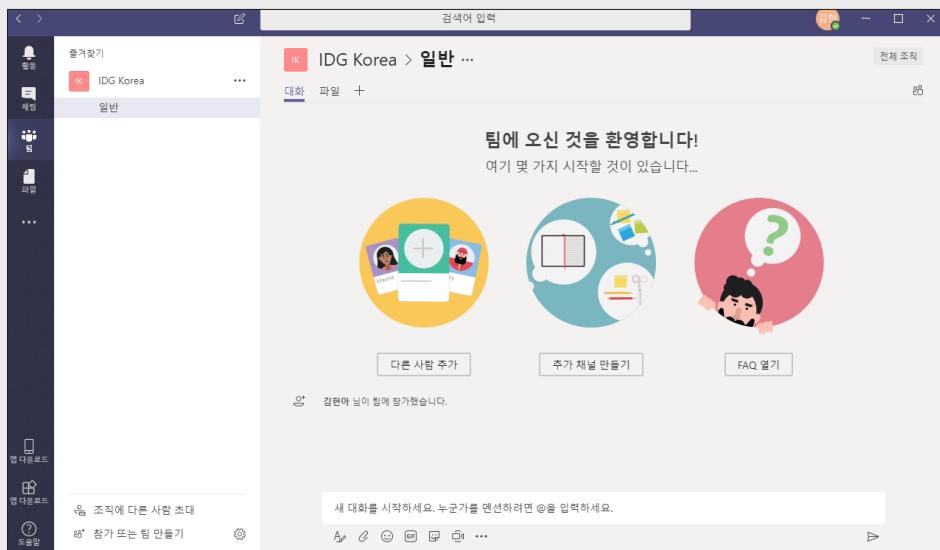
팀을 생성하면 팀즈가 자동으로 팀을 지원할 오피스 365의 요소들을 준비해 설정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세어포인트 팀 사이트를 생성하고, 추가한 팀 구성원에게 팀원들로 구성된 오피스 365 그룹(Office 365 Group, 익스체인지이나 아웃룩의 메일 그룹을 강화한 버전), 클라우드에 호스팅된 공유된 원노트 노트북, 이 외에도 오피스 365의 마이크로소프트 플래너 도구 중 일부인 공유된 플랜에 액세스할 수 있는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팀 관리 작업의 경우, 언제든지 왼쪽 탐색 막대에서 이름 옆의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구성원을 추가 또는 제거할 수 있고, 팀을 위한 채널을 만들고 팀 이름이나 설명을 바꿀 수 있는 팝업 메뉴가 표시된다.

## 채널

팀을 생성하면 팀즈 창에서 몇 가지 메뉴가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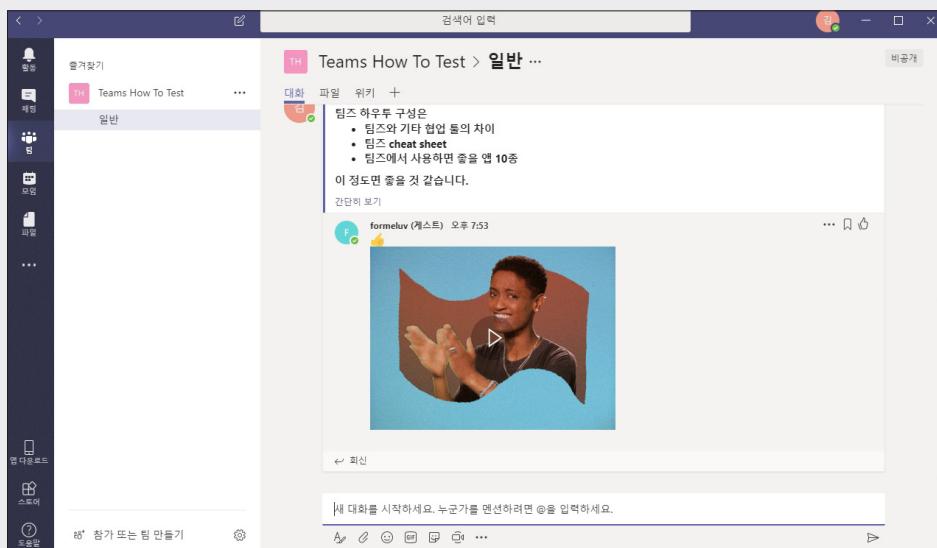


먼저 팀에 대한 일반 채널이 생성되어 있을 것이다. 채널은 대화와 협업을 하게 되는 장소다. 일반 채널은 팀즈를 처음 사용할 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장소다. 통상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특정 주제와 관련된 채널을 만든다. 특정 팀 안에 여러 채널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젯 출시 팀을 위해 영업, 생산, 마케팅 채널을 만들 수 있다. 창 왼쪽의 탐색 막대에서 모든 채널을 탐색할 수 있다.

각 채널에서 팀즈의 메인 화면 위쪽에 탭들이 표시된다. 대화 탭, 파일 탭, 노트 탭, 기타 관련 서비스 탭을 예로 들 수 있다. 구성원이 특정 채널에서 파일을 추가하거나, 대화를 시작하거나, 대화에 응답하는 등의 작업을 하면, 왼쪽 탐색 막대의 채널 이름이 굵게 표시된다.

## 대화

대화 탭은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처럼 동작한다. 지속적인 대화에서 팀원의 말에 답을 하거나 입력할 때 @[사용자명]을 붙여 그 사용자가 특정 내용에 주목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예 : @hyuna 최근 통계 보셨나요?) 태그가 지정된 사용자의 팀즈 클라이언트에는 태그가 지정된 부분을 밝은 붉은색으로 표시해서 그 사용자가 메시지를 쉽게 확인해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이모티콘과 GIF도 사용할 수 있다. 페이스북처럼 동작한다고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단체 통화나 파일 공유 같은 다른 활동들이 대화 탭에 타임라인 방식으로 표시된다.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으나, 소셜 사이트의 뉴스피드처럼 대화 탭안을 채우게 된다. 또한, 현재 팀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화 인터페이스의 프로필 사진에 흰색 체크마크와 함께 녹색 원이 표시된다.

## 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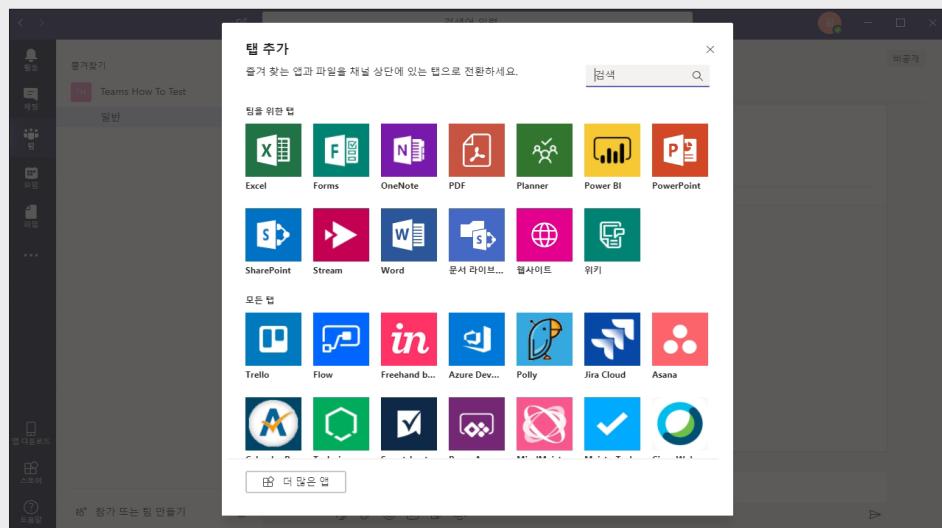
팀즈 기능에 오피스 365 서비스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는 파일 탭에서 아주 명백히 드러난다. 창에 공유 셰어포인트 팀 사이트의 파일 목록이 채워지면



서, 브라우저로 불러오고 클릭하는 등의 시간을 절약해준다. 여기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열고, 편집 및 복사하고, 이동하고, 다운로드하고, 삭제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과 공유할 문서의 링크를 얻을 수 있다. 파일 탭에 또 다른 유용한 기능이 있다. 여기에서 문서와 관련된 그룹 채팅을 시작하고 이 그룹 채팅 내용을 나중에 참고할 수 있도록 대화 탭에 문서회화할 수 있다.

### 탭 추가하기

탭은 기본적으로 팀즈의 흥미로운 통합 작업이 이뤄지는 곳이다. 다른 오피스 365 서비스의 기능과 서드파티의 기능이 새 탭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엑셀 스프레드시트, 워드 문서, 파워 BI 대시보드, 플래너 계획 등을 팀즈 클라이언트 탭으로 추가할 수 있다. 새 탭을 추가하려면 탭 인터페이스의 오른쪽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현재 지원 센터 티켓 추적 및 대화에 도움을 주는 젠데스크(Zendesk), 팀 작업 추적용 아사나(Asana), 기타 수십 종의 서드파티 도구가 통합되어 있다. 팀즈가 더 성숙한 제품이 되어가면서 이 목록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 주요 인터페이스와 기능

팀즈 창의 상단과 왼쪽에는 주요 메뉴들이 포진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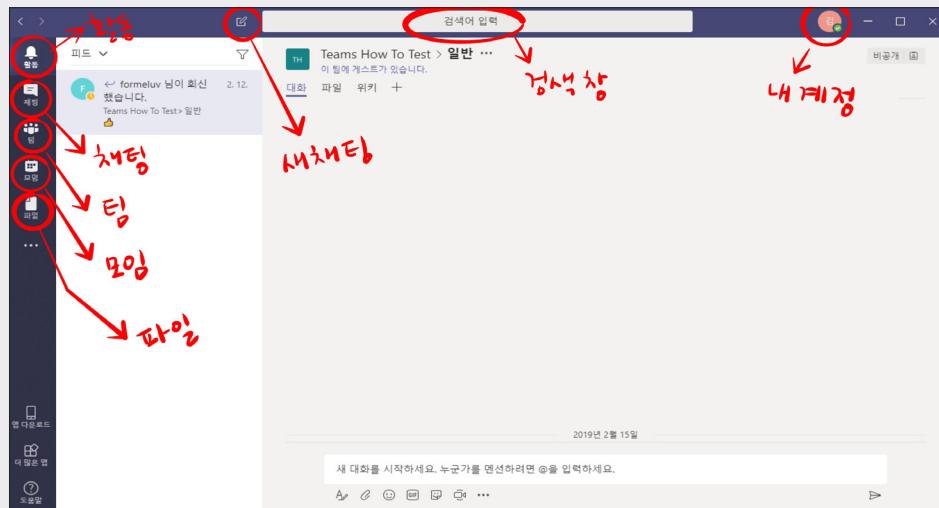
**검색 창** : 상단 중앙에 위치하는 검색 창에서는 사람의 이름, 키워드나 구문을 입력, 과거 대화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다.

**내 계정** : 상단 오른쪽에는 사용자 계정 관련 아이콘이 있다. 여기를 클릭하면 설정과 본인의 상태, 프로필 사진을 변경할 수 있다.

**새 채팅 아이콘** : 한 명 이상과 비밀 대화를 시작하려면 검색 창 왼쪽에 있는 ‘새 채팅’ 아이콘(연필과 종이가 함께 있는 모양)을 클릭한 후 채팅 할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거나 연락처를 선택한 후 메시지를 입력한다.

**활동** : 페이스북의 ‘알림’ 영역과 마찬가지로, 사용자에게 보내진 @ 멘션, 응답, 기타 알림이 여기에서 강조되어 표시된다. 깔때기형 아이콘을 클릭하면 필터링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채팅** : 혼란스러운 기능 중 하나다. 팀즈 비밀 채팅 외에도, 비즈니스용 스카이프의 인스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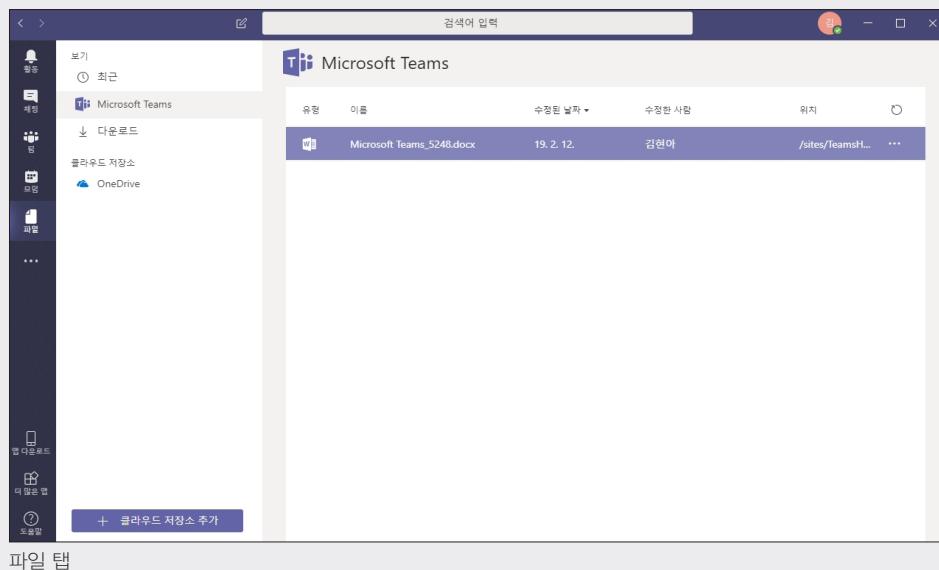


메시징 대화가 모두 여기에 표시된다.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팀월 간 그룹 채팅의 경우, 팀 대화 탭으로 이동해야 모든 구성원의 대화를 볼 수 있다. 또, 채팅 인터페이스에는 팀즈에 대한 질문에 대답해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자동 봇인 티봇(T-Bot)이 있다. 대화 탭이 질문을 입력하거나, 도움말이나 FAQ 탭을 클릭하면 유용한 주제나 자주 묻는 질문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단, 티봇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

**팀** : 자신이 구성원으로 가입한 모든 팀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다. 구성원을 추가하고, 채널을 추가 생성하고, 각 팀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시작했을 때 기본으로 가장 먼저 표시되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모임** : 기본적으로 오피스 365/익스체인지 캘린더(일정)가 표시된다. 이 탭에서 ‘모임 예약’ 버튼을 클릭해 팀 구성원 전원과의 모임을 예약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모든 팀 구성원이 포함된 팀 모임만 예약할 수 있다. 1:1 모임, 기타 비밀 모임은 아웃룩에서 예약해야 한다.

**파일** : 이 탭은 셰어포인트, 원드라이브, 원노트의 파일을 가져온다. 최근 창에 가장 최근 사용한 파일들을 표시하기 때문에 유용하다. 클라이언트에서 자신의 원드라이브를 연결해 다른 파



파일 탭

일을 찾고, 로컬 컴퓨터의 파일 다운로드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팀즈에서 할 수 없는 일

팀즈는 무수히 많은 이메일이 초래하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도구는 아니다. 다음은 피해야 할 사항들이다.

- **모든 이메일을 팀즈 대화와 링크로 대체하기** : 때때로 사람들은 새로운 기능과 도구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새로운 기능과 도구들을 과거의 모든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들로 친양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부적합한 기능과 도구’로 경시하려 시도한다. 팀즈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슬랙도 마찬가지다.
- **외부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기** : 유감스럽게도 팀즈에는 인터넷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따라서 (권한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외부 사람을 팀의 게스트로 초대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조직 외부 사람을 참여시키는 것과 관련된 작업, 활동에는 구식 이메일을 사용해야 한다. 즉, 외부 사용자와 협력할 필요가 많은 환경이나 프로젝트에는 팀즈의 유용성에 제약이 발생한다.
- **상호적인 신속한 대화와 활동 외의 대화와 활동에 팀즈를 사용하기** : 팀즈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 채팅을 많이 사용한다면 팀즈가 대화에 적합한 도구다. 메시지가 1개 단락을 넘는 길이라면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긴 대화, 프로젝트 계획, 장기 개발, 기타 깊은 사고와 분석이 필요한 작업도 이메일이 적합하다. 이런 경우, 팀즈보다 이메일 검색이 더 용이하다. 둘째, 이메일은 정렬, 필터링, 설정 규칙, 기타 정보 확인 및 검색 방식 관리에 대한 자동화 기능을 지원한다. 현재 이메일은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팀즈는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팀즈 클라이언트는 현재 다양한 고급 편집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고급 ‘자르기 및 붙여 넣기’, 고급 맞춤법 검사, 실행 취소, 대화를 특정 채널에서 다른 채널로 이동시키는 기능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 링크는 어떻게 된 것인가?

비즈니스용 스카이프의 호스트형 버전인 링크(Lync)는 장기간에 걸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안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있거나 클라우드형 음성 통화 시스템이 구현되어 있는 경우(책상에 전화가 없는 경우 해당될 확률이 높음), 조직 내부의 다른 연락처에 자동으로 음성 사서함과 자동 메시지를 전달하고, 화면을 공유하고, 온라인 회의를 하고, 직접 전화를 걸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이런 기능은 장기간에 걸쳐 배포될 예정이며, 2020년 이전에 배포가 완료되지는 않을 것이다.

소속 조직이 링크나 비즈니스용 스카이프 온프레미스 버전을 사용하고 있다면(사무실 전화에 비즈니스용 스카이프 로고가 있는 경우), 팀즈를 이런 통화 시스템과 통합시킬 수 없다. 즉, 전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어서 전화 회의나 온라인 회의에 참여해야 한다.

## 결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오피스 365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팀에 큰 도움을 주는 도구다. 다양한 오피스 365 구성 요소가 통합되어 있고, 한 장소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팀즈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8가지 팁

John Brandon | Computer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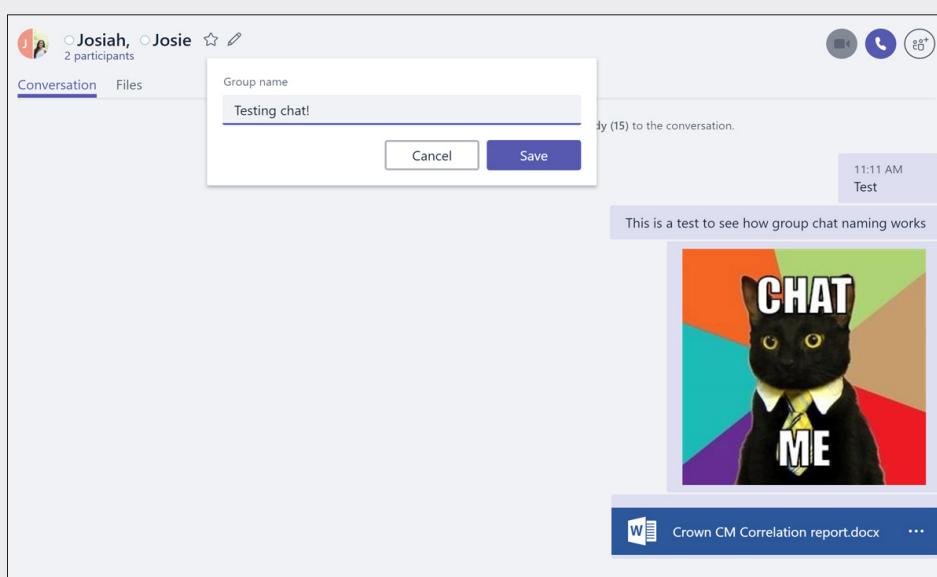
**그**룹 채팅 시장의 후발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강력한 기업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부상했다. 팀즈는 슬랙과 콘보(Convo) 같은 경쟁 제품보다 나은 확실한 장점 한 가지를 갖고 있다. 많은 회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오피스 365에서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이다.

다른 채팅 도구처럼, 팀에 대해 여러 채널을 설정하고, 파일을 공유 및 저장하고, 실시간 음성 및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제품군의 일부인 팀즈는 워드, 원노트, 플래너, 셰어포인트 같은 다른 마이크로소프트 앱들과 통합되어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팀즈가 비즈니스용 스카이프를 대체, 오피스 365의 기본 커뮤니케이션 클라이언트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금부터 팀즈를 사용하기 시작한 기업들을 위한 유용한 팁을 살펴본다.

## 1. 채팅 대화에 이름을 붙인다.

채널에는 여러 대화가 포함되어 있다. 특정 채팅을 더 쉽게 검색하고 싶다면 이름을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마케팅 부서 직원과 새로운 소셜 미디어 캠페인에 대해 채팅하고 있다면 ‘페



이스북 홍보 마케팅’ 같은 이름을 붙인다. 그러면 나중에 쉽게 검색할 수 있다. 채팅에 이름을 붙이려면 참가자들의 이름 옆에 있는 연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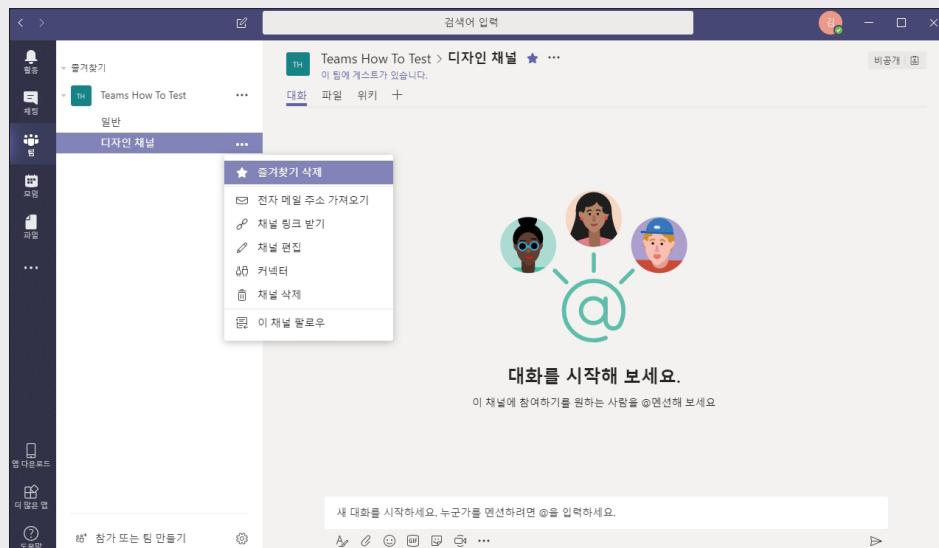
## 2. 파일 저장 및 공유에 셰어포인트를 사용한다

많은 기업이 안전한 파일 저장 및 협업 플랫폼으로 셰어포인트를 사용하고 있다. 이 셰어포인트가 팀즈에 효과적으로 통합되어 있다. 어떤 채널이든 파일 탭을 클릭, 셰어포인트를 매개체로 팀 구성원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또 채널에서 공유된 셰어포인트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다. 팀 구성원은 오피스 온라인이나 오피스 데스크톱 앱을 사용해 채널에 공유된 파일에 대해 협업할 수 있다.

## 3. 이메일을 채널로 전달한다

규모가 작은 일부 스타트업은 이메일 대신 채팅만 사용하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메일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다행히 아웃룩에서 이메일 메시지를 채널로 전달할 수 있다.

채널 이름 옆의 생략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전자 메일 주소 가져오기’를 선택한다. 그러면 채널에 대한 이메일 주소가 생성된다. 이 주소를 복사, 채널에 추가하고 싶은 워드 문서, 메시지, 기타 자료를 전달할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 아주 유용한 방법이다.



## 4. 이동 중 대화에 모바일 앱을 사용한다

많은 팀즈 사용자들이 잘 모르고 있지만, 안드로이드와 iOS, 윈도우 모바일용 앱이 있다. 추가 계층과 기능은 많지 않고 팀 채팅과 채널만 강조해 단순화시킨 앱이다. 또, 웹 앱, 윈도우나 맥용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도 있다. 선택지가 많다는 의미다.

## 5. 간단한 작업 관리에 팀즈에 통합된 플래너를 활용한다

슬랙을 비롯한 경쟁 제품 대비 차별화된 장점은 팀즈 내부에서 플래너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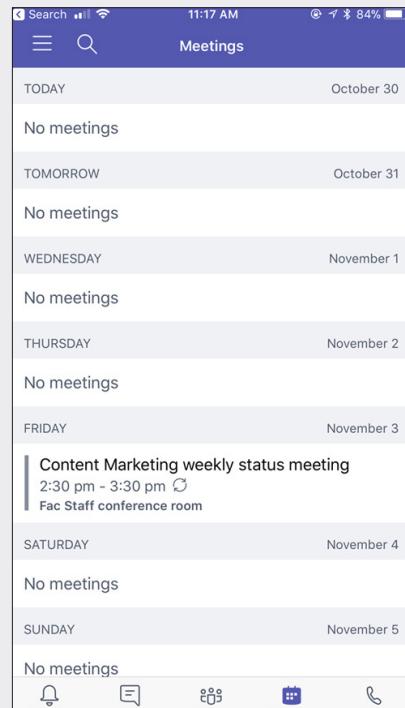
앱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슬랙도 광범위한 통합을 지원하지만, 팀즈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통합되어 있다.

작은 규모의 팀을 위한 작업 관리 도구인 플래너는 아주 우수한 도구는 아니다. 그러나 서드파티 작업 관리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도, 번거로움 없이 팀즈에서 작업을 추적 및 참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플래너 앱을 채널에 고정시켜 클릭 한번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고정을 시키면, 플래너가 채널 맨 위에 탭으로 표시된다. 플러스(+) 아이콘을 클릭해 작업을 추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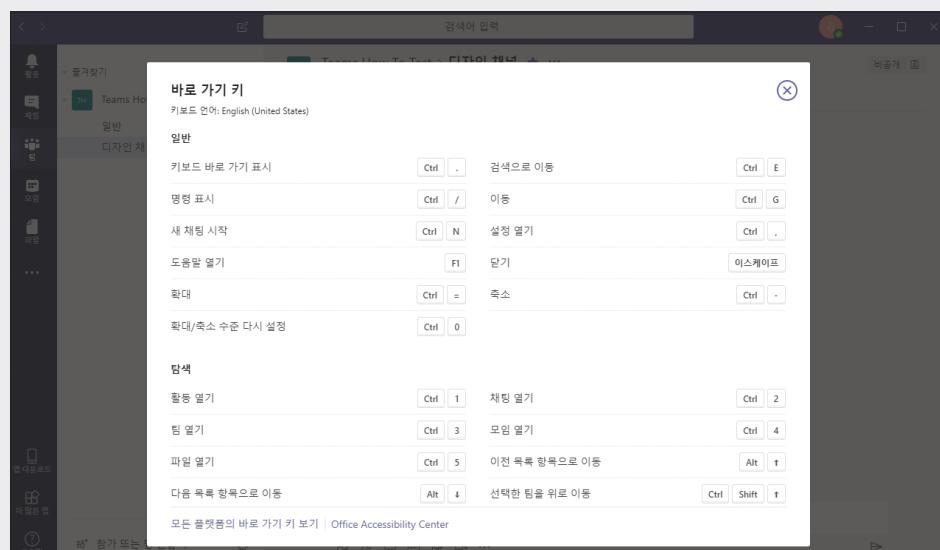
## 6.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는 여러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구다. 같은 팀의 팀원들과만 채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웃룩 계정을 가진 기업 내부의 사람에게 게스트 액세스 권한을 부여, 그 즉시 채팅하고 문서를 공유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기업 내부의 사람 이름을 검색해 찾아서 즉시 채팅을 시작할 수 있다.

기업 내부 사람만 게스트로 액세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사용자가 8억 7,000만 명인 애저 액티브 디렉토리(Azure Active Directory)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초대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가진 사람들도 초대할 수 있다. 조직 외부의 사용자를 추가하는 경우 이 사용자를 프로젝트에 대한 채팅에 포함한 다음 채널에서 태그를 지정하면, 이메일을 보내지 않고도 워드 문서를 공유할 수 있다.



팀즈 모바일 앱



팀즈 단축키

## 7. 자신만의 GIF를 만든다.

채팅에 창의적인 애니메이션 GIF를 포함시키면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팀원과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휴식을 취하는 고양이, 모자를 벗어 인사하는 사람 모양의 GIF는 돋보일뿐더러, 적합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팀즈에 포함된 애니메이션 GIF 가운데 선택하거나 지피(Giphy)를 사용해 자신이 직접 GIF를 만들 수 있다. 이는 채팅에 ‘개인화’를 제공하는 기능이다. 지피가 팀즈에 통합되어 있지만, 이를 사용하려면 팀즈 관리자가 지피를 활성화해야 한다.

## 8.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한다

키보드의 R키를 누르면 팀즈 앱의 스레드에 응답할 수 있다. 이런 단축키를 알고 있는가? 또 윈도우에서 Alt와 A(맥에서는 Option과 A)를 눌러 메시지에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다. 윈도우는 팀즈에서 Alt와 /를 눌러, 맥은 Option과 /를 눌러 사용할 수 있는 키보드 단축키를 모두 확인할 수 있다. [IT WORLD](#)



테크놀로지 및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최적의 미디어 파트너



## 기업 IT 책임자를 위한 글로벌 IT 트렌드와 깊이 있는 정보

ITWorld의 주 독자층인 기업 IT 책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보다 효과적으로 IT 환경을 구축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ITWorld는 단편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과 형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ID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방대한 정보와 전세계 IT 리더들의 경험 및 의견을 통해 글로벌 IT의 표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의 생산성을 올려주는 앱 10종

Matthew Finnegan | Computer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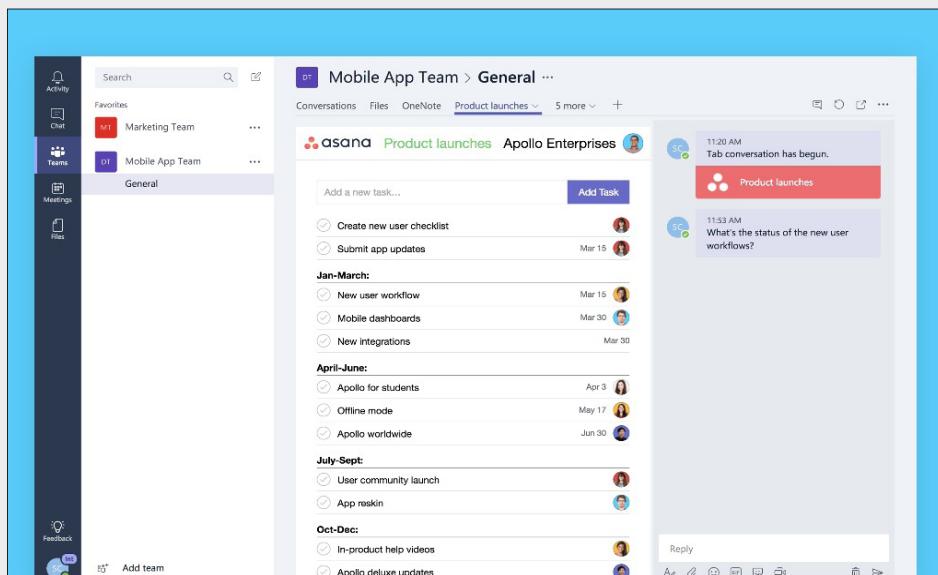
**ㅁ** 이크로소프트의 채팅 기반 협업 툴인 팀즈(Teams)는 그룹 채팅, 다이렉트 메시징, 파일 공유를 통해 직원들을 서로 연결한다. 팀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각종 오피스 생산성 앱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 툴에 비해 월등히 우월하다. 그러나 사용자는 개발자와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수많은 앱으로 연결할 수 있기를 여전히 기대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염두에 두고 팀즈가 출시된 2017년 이후부터 꾸준히 서드파티 앱 애드온을 추가해왔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앱 스토어에는 주요 경쟁자인 슬랙보다는 적지만, 현재까지 200종 이상의 AI 봇, 앱, 커넥터가 있어 팀즈를 떠나지 않고도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서드파티 앱 애드온 10가지를 소개한다.

## 1. 아사나(Asana)

작업 관리 툴을 팀 채팅 앱과 결합하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공조하고 추적하는데 편하다.



아사나는 시중에 있는 대표적인 선택지 중 하나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플래너(Planner) 앱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아사나 애드온은 팀즈에서 아사나 작업 목록을 열람하면서 프로젝트에 관해 동료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준다. 프로젝트 내 전체 작업을 열람할 수 있고, 작업이 누구에게 할당되었는지, 마감 시한이 언제인지 알 수 있고, 아울러 작업이 완수되면 이를 완수로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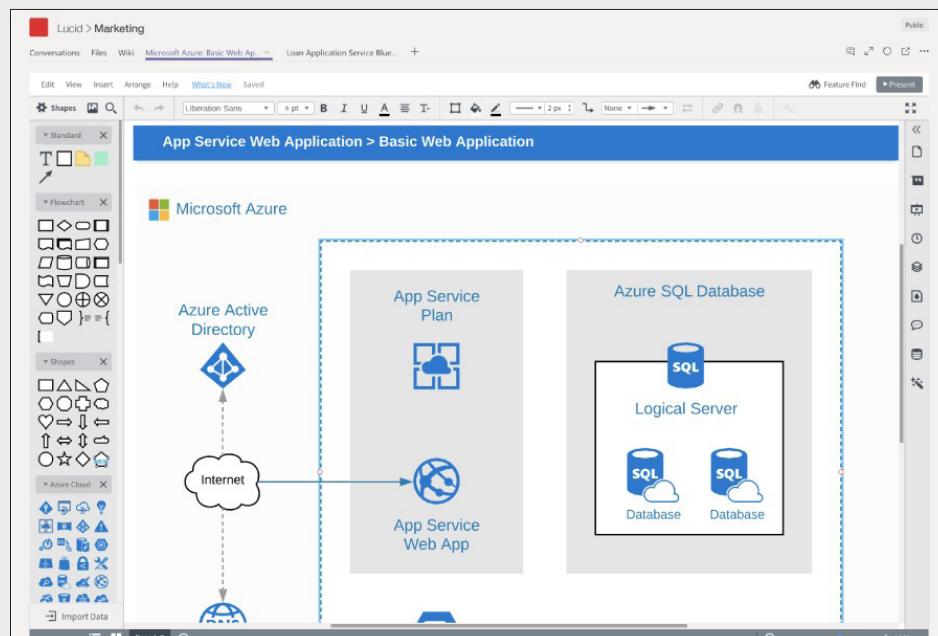
아사나 무료 버전은 최대 15명으로 구성된 팀에게 이용 가능하고, 유료 구독은 9.99달러에서 시작한다.

## 2. 루시드차트(Lucidchart)

루시드차트는 시각적인 드래그-앤-드롭 인터페이스를 이용해 다이어그램을 생성하는 툴이다. 루시드차트 문서는 팀즈 채널 안의 탭으로 추가할 수 있고, 팀 구성원은 해당 문서를 편집하거나 이에 관해 코멘트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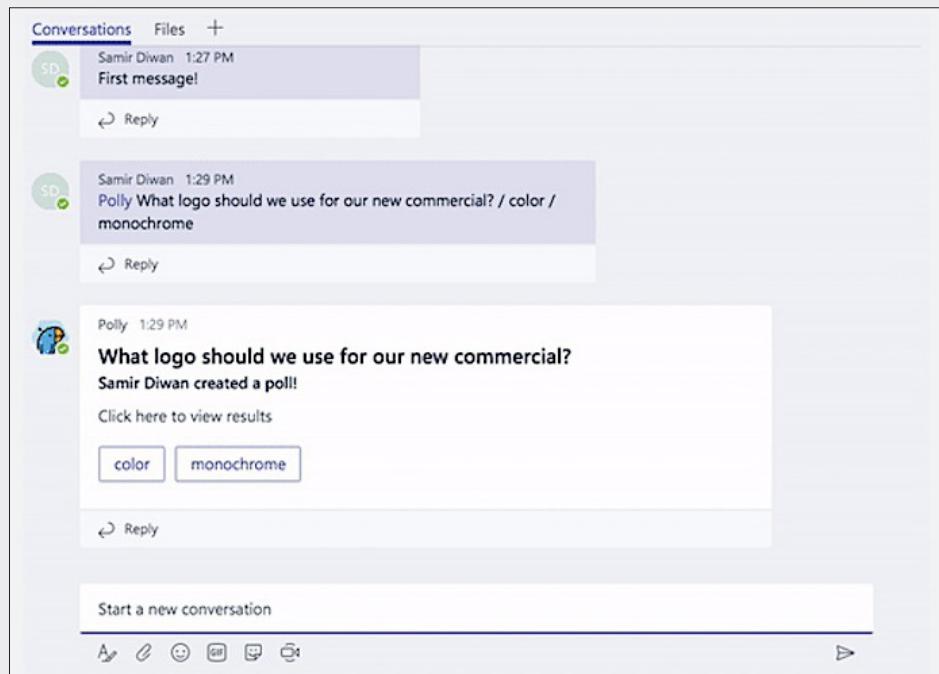
거의 모든 루시드차트 앱 기능을 팀즈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내장 편집기 코멘트, 메모, @mentioning 알림에 의한 사용자 피드백이 가능하고, 문서의 변경을 검토하거나 이를 이전 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인 탭 역시 생성할 수 있다.

루시드차트는 베이직(Basic) 상품에 사용자당 월 4.95달러이고, 루시드차트 프로는 사용자당 월 9.95달러다. 팀 요금제는 월 20달러부터 시작한다.



## 3. 폴리(Po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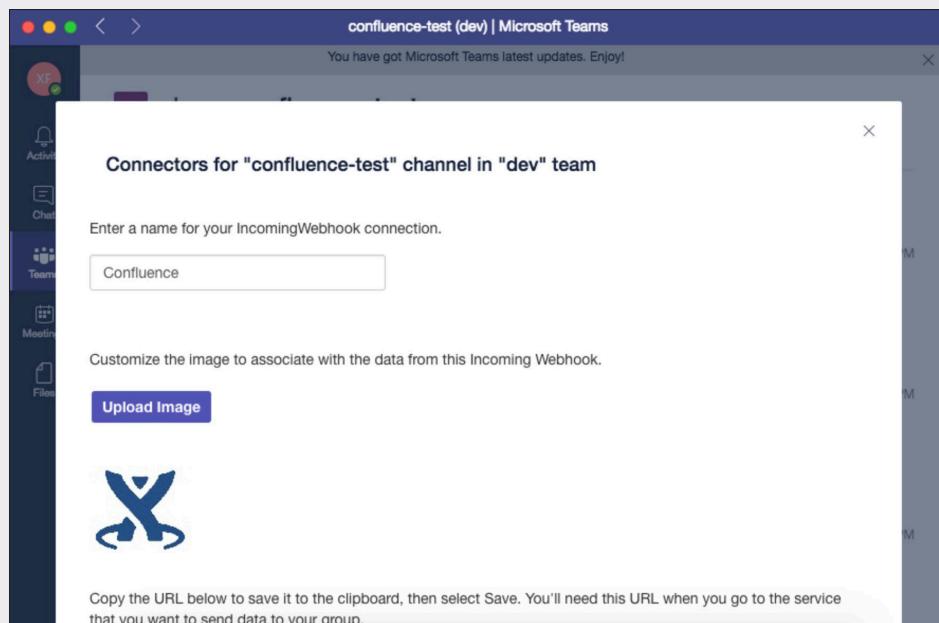
직장 동료와 어디서 점심 식사를 할 것인지, 또는 다음에 처리해야 할 작업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폴리는 팀즈 채널 안에서 즉시 여론 조사를 실시해 사람들의 의사를 실시간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다.



폴리 앱 팀즈(Polly App for Teams)의 개정판에는 폴리 봇이 아닌 폴리 탭을 통해 여론 조사를 할 수 있다. 질문 유형도 더 다양해졌고, 여론 조사 일정 관리 및 코멘트 등의 기능도 추가됐다. 폴리는 연간 기준으로 개인 구독의 경우 월 50달러이고, 팀의 경우 월 200달러에서 시작한다.

#### 4. 컨플루언스 클라우드(Confluence Cloud)

마이크로소프트의 세어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아틀라시안의 컨플루언스 클라우드는 콘텐츠를 생성해 동료와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그림이 포함된 마케팅 계획이라든



지, 블로그 게시물, 회의록 등이다.

팀즈를 위한 메시지 익스텐션이 추가되면서, 컨플루언스의 프리뷰를 팀 또는 개별 채팅에서 열람할 수 있다. 아울러 최근의 개정판에는 컨플루언스 페이지를 블로그 게시물로 설정하거나 빠른 참조를 위해 팀즈 채널 내 탭으로 고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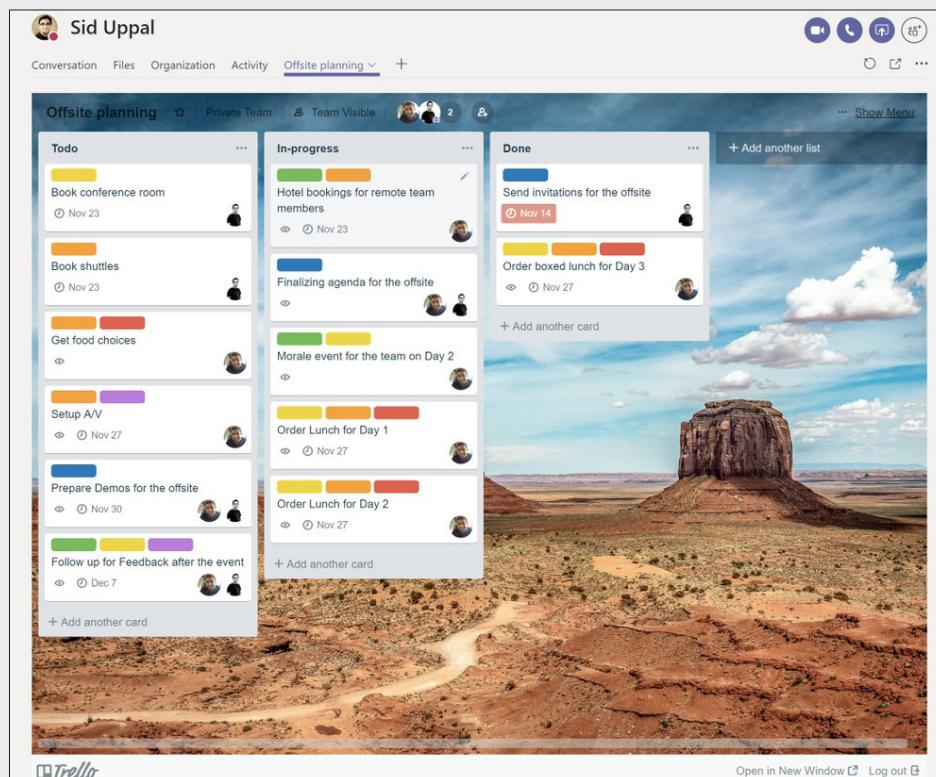
컨플루언스 클라우드는 최대 10명의 이용자에 대해 월 10달러를 부과하고, 10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당 월 5달러에서 시작한다.

## 5. 트렐로(Trello)

아틀라시안이 개발한 이 인기 작업 관리 앱은 팀즈 사용자가 협업 중인 프로젝트를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트렐로의 퍼스널 앱과의 통합을 강화했고, 사용자는 전체 보드에 걸쳐 할당된 트렐로 카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다. 아울러 작업의 마감 시한을 조회할 수 있는 달력 화면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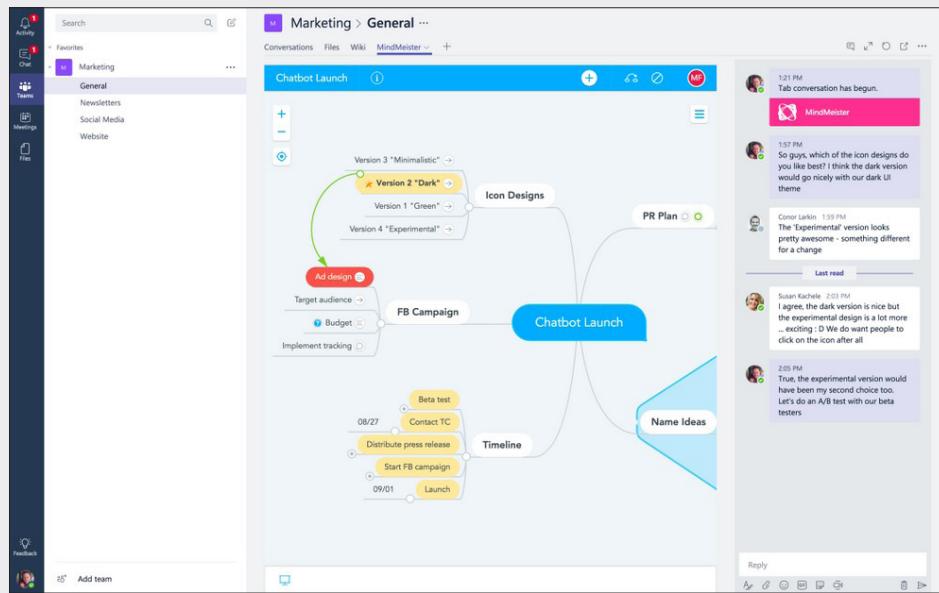
팀즈에 통합된 트렐로 외의 프로젝트 관리 툴로는 스마트시트(Smartsheet), 라이크(Wrike) 등이 있다.

트렐로는 제한적인 무료 버전을 제공하고, 비즈니스 클래스 등급은 사용자당 월 9.99달러다.



## 6. 마인드マイ스터(MindMeister)

중대한 프로젝트와 관련해 채팅으로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하다보면 산만해지기 쉽다. 저마다 아이디어를 내면서 글을 올리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일이다. 마인드マイ스터는 팀즈 채널에



탭으로 추가할 수 있는 마인드 맵 툴로 이 과정을 한층 체계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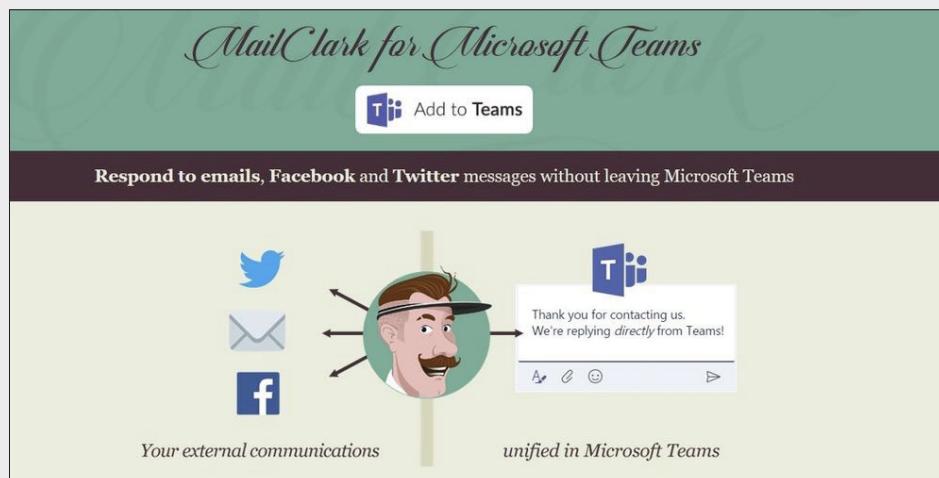
최신 개정판의 경우 팀즈에서 마인드마이스터 대시보드를 볼 수 있다. 사용자는 전체 마인드 맵을 한번에 열람할 수 있고, 다른 채널의 맵에 접근할 수 있으며, 맵을 풀더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

마인드마이스터는 기능이 제한적이고 마인드 맵 수가 한정된 무료 버전을 제공한다. 기능이 더 많은 퍼스널 등급은 이 제한이 없고, 월 4.99달러다. 프로 및 비즈니스 구독은 각각 사용자당 월 8.25달러, 월 12.49달러이고, 팀 사용을 전제로 한다.

## 7. 메일클락(MailClark)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직장 내 채팅 앱의 인기로 인해 이메일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메일클락 AO 봇은 팀즈에서 직접 이메일과 기타 메시지를 관리하고 응답할 수 있게 해준다.

메일클락은 지메일, 오피스 365 메일,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플랫폼을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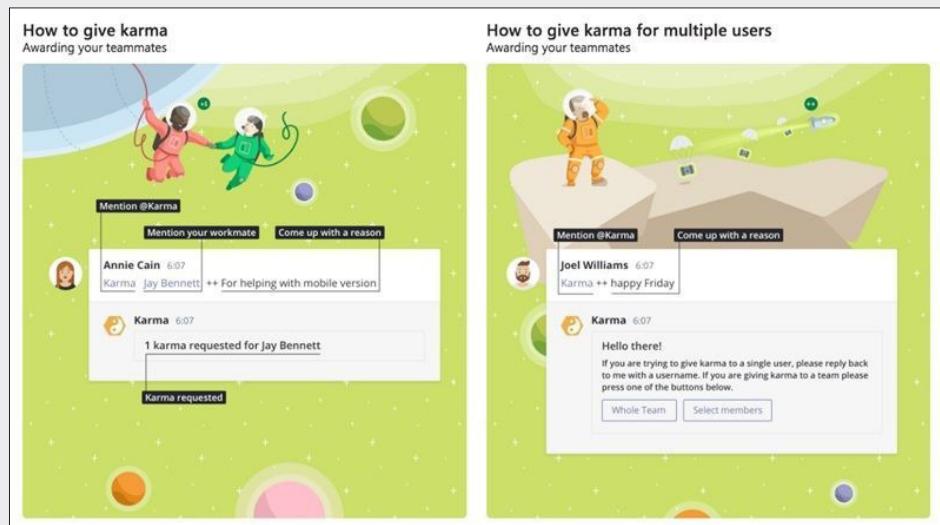


월 100개 메시지로 한정된 무료 버전은 소규모 팀에게 적합하다. 유료 버전은 이 제한이 없고, 이메일 또는 소셜 미디어 계정당 월 3달러다.

## 8. 카르마봇(Karma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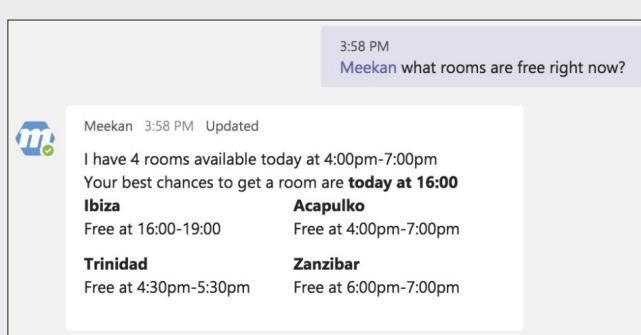
카르마봇에서 팀 구성원은 프로젝트 초기 완수처럼 실적이 좋을 때의 보상 차원에서, 또는 잘 못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카르마 포인트를 받는다. 일종의 디지털 칭찬으로 성취를 인정한다는 발상이다. 카르마봇은 개발자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견인하고 실적을 추적하는데 유용하다. 카르마 포인트는 팀 또는 개인 상여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

카르마봇 앱에 의해 관리자는 이제 팀즈 인터페이스에서 팀 구성원에게 특정 일자 범위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팀즈 구성원은 예를 들어, “짜증나는 버그를 수정한 공로로 '@Karma @user++' 등의 팀즈 명령을 이용해 서로에게 카르마 포인트를 나누어 줄 수 있다. 카르마봇은 최대 9명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유료 버전은 사무실당 월 30달러에서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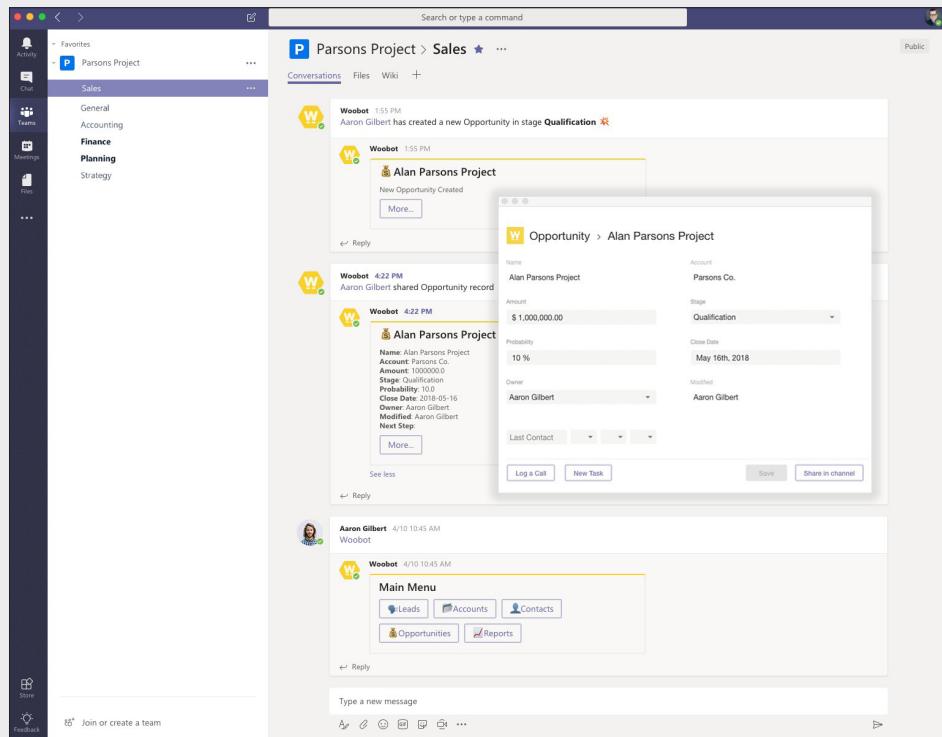
## 9. 미칸(Meekan)

무료 AI 일정 관리 비서인 미칸은 자연어를 이용해 새 회의를 정하고, 시간을 확인하고, 공실을 찾고, 손님을 초대한다. 이는 팀즈의 @Meekan 프롬프트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캘린더 앱 사이를 왔다 갔다 하거나 이메일을 주고 받을 필요 없이 미칸에게 문의 하면 동료나 자신의 캘린더를 이용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미칸은 무료지만 온프레미스 버전은 수수료가 부과된다. 가격 정보는 회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 10. 세일즈포스용 우봇(Woobot)

우봇은 세일즈포스와 결합해 팀즈 사용자가 간단한 텍스트 명령으로 CRM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탐색 기능은 판매 직원이 앱들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판매 리드에 관한 정보를 찾는데 유용하다. 한편, 알림 기능은 사용자 정의에 따라 중요 거래 현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팀즈에서 접근할 수 있는 ‘우봇 브레인’ 유틸리티에 의해 모든 구성이 설정된다.

우봇의 가격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ITWORLD](#)